

# 사설

## 청소년보호에 나서자

요즘 청소년들이 왜 이렇까? 이런 의문을 안가져본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청소년들의 폭력비행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일이 그 사례를 듣다의 것이 무도할 정도로 그 행태가 심각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기성세대의 일각에서는 두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심각한 청소년들의 행태를 마치 전체 청소년들의 문제인 것처럼 크게 확대해석하는 경우이다. 다른 한쪽은 내집 아이는 그런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고만 생각하여 우리 사회의 저변에 널리 깔려있는 병폐조작 은폐하거나 외면하려는 경우이다. 어느쪽이든 주된 청소년들의 중심행태를 알지 못한 반응임에는 틀림이 없다. 청소년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걸맞은 해법을 중의를 모아 시행한다면 우려하는 어떤 문제든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단 환영한다. 보호법이란 이름이 시사하듯이 무엇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 무엇이든 기성 부정적 영향을 줄 행태들임에 틀림이 없다. 보호를 내세워야 할 만큼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들이 부정적이라면 그 책임은 다분히 기성세대들의 몫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결정론이란 가설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틀을 삼는데 그 핵심이 원인지인지 지 않은 결과는 없다는 논리다. 어떤 행동의 결과도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이야기니 불가의 윤리적인 생각과 틀리지 않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청소년들의 부정적 행태는 기성세대의 원인 제공의 결과이고 그 청소년들의 미래는 결국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지금의 보호법을 낳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면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률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 법률적 뒷받침으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연관부서나 사회·가정에서 도와야 한다.

우선 법률적 내용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보자. 이 점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꾸어야 할 일이면 과감히 바꾸자. 기존의 관행을 들어 이 법률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크고 넓게 생각해 본다면 관행을 바꾸고 적응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권해 본다.

다음으로는 '종교적인 역할이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광배하고 있는 물질중심적 사고나 이로 인한 병리적 행동양태들을 교정하고 부정적 주변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에 종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부재나 병폐로 인해 생겨났다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자녀가 귀하다는 한가지 이유로 가정교육의 적정기를 놓치고 학교에서도 인성을 뒤로 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병을 유발시켰고 사회에 나가서는 격렬한 경쟁을 통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재주만을 가르쳤으니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를 바르게 고치고 바른 영향을 주며 바른 열매를 얻기 위해선 종교적 역할이 크다는 뜻이다. 불교계는 간절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독거리면서 함께 생각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이 7월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으니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단단히 해보도록 하자는 뜻이다.

군부대에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3개 종교가 각각 성직자를 파송하여 고유의 종교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군대는 포교(선교)의 황금어장'이란 말까지 있지만 불교는 타종교와 비교할 때 조직·내용면에서 엄청난 열세에 놓여있다.

96년 5월 현재 군종장교 현황을 보면 불교가 97명(20%), 기독교가 324명(66%), 천주교가 70명(14%)씩 활동하고 있다. 또 군내 종교시설은 법당 305동(22%), 기독교 856동(62%), 천주교 216동(16%)씩을 점유하고 있어 기독교와 비교하면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 종교별 신자현황은 불교가 16만1천여명, 기독교가 30만1천1백여명, 기독교가 8만7백여명으로 나타나 있다.

**종교활동 현황**

**군종장교 66% 군목사 상명하복식 종교편향**

불교의 군내 위상이 100여년 짝은 역사의 기독교와 비교할 때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군목제도의 도입과 20여년동안 군내 종교활동을 기독교의 독점으로 방치한 사회·정치적 구조의 편향이라는 원인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 3월 육군 특수전학교의 본보무취 사건과 5월 육군 논산훈련소의 군목·조교들의 기독교 신앙 강요도 연대급 이하 부대에 군법사가 전무한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이같은 주장을 증

명하는 예다. 현재 훈련병들의 인성 및 인격교육은 군종장교가 맡고 있는데 군종장교의 66%가 군목사인데도 연대급이하 소규모 부대에서는 3대종교 가운데 기독교 목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인성교육시간이 자연스럽게 특정종교의 선교시간으로 둔갑하고 만다는 것.

따라서 병역법·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군종장교의 병적 편입의 자격요건을 넓혀 군중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군부내 종교정책의 형평성은 종단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여론도 높다. 꾸준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개선안 종교평등 보장 주관**

육군 특수전학교 종교편향 사건과 같은 유사사태의 재발방지와 군중 발전을 위해 현행법규의 제·개정과 보완 그리고 금번 사건의 교훈을 전 장병 및 군종장교에게 주지시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군은 △7월중에 준법적 효력을 가진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고 △종교활동 관련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을 9월중에 개정하고 △각군규정을 단계적으로 제·개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군종법과 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으로 △군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검토(97.7.한) △군종법 신법 및 교육제도 검토(97.7.한) △교육기강 확립 및 교육성적 인사관리 반영 등 군종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 강화(97.9.한) △사단급 합대급 비행단급에 군종통합 사무실(군종합모부) 운영(97.10.한) △군종실무지침서 발간(97.12.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자율적인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신자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군중활동을 지양하고 군종장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

# 열린마당

## 軍 종교시책

최근 일부 군부대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군의 종교시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군중충원 등 불교계의 대척마련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와 예비역군법사, 군포교 현장에서 보살핌을 펼치는 불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군내 종교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사찰-군법당 지원... 군중충원 역점

**원혜 (조계종 포교부장)**

무엇보다 군종장교와 종교시설의 현격한 차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군내 교회는 1천곳, 군목은 3백30명, 군종사병 2천명, 군종행정관이 60여명이다(97.5 '군종실태조사보고'). 불교는 법당 3백여곳, 군법사 1백여명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이라는 지점이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전략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각급부대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국방부가 군종시책을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면, 각 종교의 형평한 예 배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대급부대까지 군예산으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종교에서

예배장소를 지어 군부대에 기부하는 형식이 주류였다. 이는 당연히 종교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른다. 군종장교의 수급제도도 문제이다. 불교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다. 다만 그동안 학사 이상의 자격요건으로 동국대에서만 배출되던 군종장교가 최근 4년제 정규대로 승격된 중앙승가대에 까지 확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속적으로 군중법사를 확대, 2005년까지 18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 군중사관후보생·군중요원 자격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다.

불교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포교원은 군부대 내에서의 종교편향 사례 자료집을 각 사찰에 배포해 군포교 실상을 전하고, 1사찰·1신도단체의 1군법당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20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열린 불중수계대법회.

## 김반아성 (불교어머니회 회장)

군부대 안에서 불교를 침해하고 불교를 믿는 사병의 신앙을 억압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불자들이 단합된 힘을 모아 주지 못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폐해라고 본다.

군부대 내에 교회 십자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 가는데 불교계에서는 천막 법당조차 마련하지 못해 법회를 보지 못하는 군부대가 수도룩 한 것 또한 그 이유에서 일 것이다. 논산훈련소의 경우 지난 93년부터 호국연무사의 중장불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진척이 안되는 실정이다.

또한 군장교 인력확보도 중요하다. 타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불교군종장교를 시급히 양성해야 한다. 장병들을 방문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단돈 1백5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보시하는 것이 사찰불사 못지 않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지휘책임자가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를 내세워 종교적 편향사례를 속속시켜도 불자들은 대부분 속단 태울 뿐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불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합치고, 불자장병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더이상 군부대 내에서의 종교편향 사례는 없으리라 본다.

## 군법사 양성 시급... 불자 단합 절실

## 군포교 전담부서 설치 감시기능 강화

**권오성 (예비역군법사회 회장)**

국방부의 종교시책은 한마디로 일관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의 졸속정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했으면 이를 끈기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도 군종실장 등 관련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전의 정책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해 버리는 수가 허다하다. 또 어떤 사안은 계획만 거창했지 서류에 묻힌 채 시행조차 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

그러나 국방부 종교정책의 가장 큰 오점은 역사적 해성과 편익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는 종교간의 형평성에 대한 감각 상실이다. 지금까지 반복된 각종 편향사례들을 볼 때 군 특유의 감시기능마저 마비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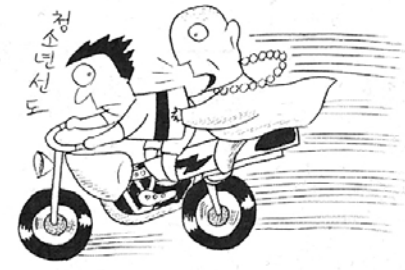
군에는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등 3개 종교가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소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갈등과 충돌에 대한 예측과 사전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교육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의 종교교육은 신자확보의 일환으로 활용될 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기까지 한다.

불교계도 최소한 군포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포교현장은 물론 국방부 종교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현대만평 박구원

## 현대만평



적극적으로 나서서...

737-8881

## 생활속의 불교 (129)

# 나와 부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과거에 지은 것을 오늘에 녹이고 미래에 지고 갈 것도 오늘에 녹여라. 과거에 진 숨을 오늘에 놓는다면 내일에는 숨이 불을 잃었다. 오늘 불을 게 없는데 어찌 내일에 불을 게 있었는가?"

오늘 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마치 벽을 향해 던진 공이 내게로 되돌아오듯이 그 결과는 자기한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공연히 속상해하고 꼬부정한 마음을 갖는다면 속상한 일과 꼬부정한 일만이 되돌아 올 것이다.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 내게 닦쳐오는 모든 괴로움과 장애. 이런 것들은 과거로부터 본래 내가 지어 온 과보인 줄 알아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남에게 미루지 말라.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려 스스로 내 마음에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 과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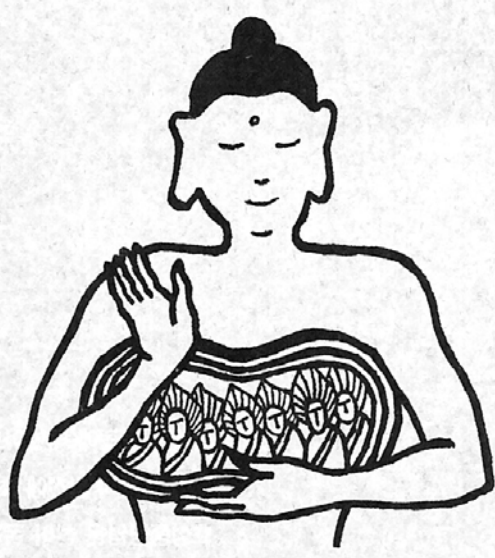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없다. 나쁜 일 좋은 일 모두가 내 작품이

다. 나는 가만히 있는 데 혹은 아무런 원인제공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내 몫이지 남의 몫이 아니다. 내가 그 시원(始源)을 모른다면 내가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내 탓'임을 인정하고 내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

제 아무리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다해도 무엇보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게 일이 생긴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자신이 몰랐고 있는 세계가 좀 더 밝혀져기를 희망한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지금보다 더 명랑하고 화합적이기를 바란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순수해지고 더 긍정적이 되고 더 선량해져기를 바란다. 누구라도 나를 중심이로 한 이웃 세계가 즐겁고 건실적인 모습으로 바뀔으로써 하루하루의 삶이 알차고 보람되기를 회구한다. 그러나 현실은 웃음만으로도 꽃동산도 아니다. 긴장과 갈등, 미움과 분증이 더 찾고 좌절과 스트레스가 다만 사처럼 돌아간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습을 원한다면 단 하나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 자신의 말, 자신의 눈빛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부터 바뀌지 않고 주변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내 탓을 없고 남의 탓만 있다고 보는 편협한 소견일 뿐이다. 그것은 손가락질만으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가령 온 천하가 내가 좋아하는 푸른 색깔로 변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푸른색 안경을 쓰면 된다. 내 눈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질 않는다.

마음 속에 미움을 남겨두고서 화합을 말할 수는 없다. 내 마음 속이 미움으로 가득 차서 는 중요없는 세상을 바랄 수 없다. 미움을 남겨둔 채 화합하는 것은 거짓 타협일 뿐 진정한 화합이 아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한, 싫어하는 한 나와 그와의 관계는 미움이 더 큰 미움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나의 미워하는 마음을 안으로 녹일 때, 그 순간부터 미움의 자리엔 대신 화합이 깃든다. 눈이 녹는 자리에 매화가 피어나듯이

미움은 웃음이 되고 향기로 변한다.

미움은 미움으로 돌아오고 웃음은 웃음으로 돌아온다. 나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메아리처럼.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나는 불국정토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있을까. 부처님과 늘 함께 살고 불국정토에 몸을 위탁할 수는 없을까.

내가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곧 나와 부처님과의 거리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주변사람과의 거리가 다행이 바로 나와 불국정토의 거리이다. 고로 그 거리를 좁히는 일, 아니면 넓히는 일은 내 손에 달려 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자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자기의 일이다.

눈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을 녹이고 바꾸는 일-나의 회개와 참회는 부처님께, 불국정토로 나아가는 금형일차표이다.

협찬 : 권오성